

# 민주새 원내대표에 '친명 중진' 3인 출마...김민석·남인순·홍익표

김민석 “강하고 선명하게 당과 대표 지킬 것”  
남인순 “정권 폭주막은 원내 야전사랑관 될 것”  
홍익표, 가장 먼저 후보 등록 마쳐...입장은 아직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김민석·남인순·홍익표 등 친이재명(친명)계 3선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선언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비이재명(비명)계가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의원은 김민석·남인순·홍익표 등 3명이다.  
홍 의원이 전날 후보 등록을 가장 빠르게 마쳤고, 이어 남 의원이 이날 오전 10시에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모두 3선 중진 의원이자 친명계로 분류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재 김 의원은 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민주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경험, 전략, 정책,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목격하고 날카로운 칼로 되살리겠다”며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지혜롭고 신속하게 당을 안정시켜 감서 승리를 이루고 총선 승리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가 아니면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어려우니까 김민석이다. 당을 생각하면 김민석”이라며 “강하고 선명하게 당과 대표를 지키겠다.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당 최고위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남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의 변을 밝히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로 위기에 처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검찰을 앞세운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 이 대표와 당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된다면 지킬 건 지키는 원칙 있는 단결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 원내 야전사랑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당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원장을 거쳤고,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후보 등록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원내대표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던 박범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면의 분노와 무력감을 다스리지 못한 채 원내대표의 직분을 맡아보겠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현재는 3명이지만 등록 마감 시한이 이날 오후 6시까지인 만큼 후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친명계에서는 김두관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비명계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박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비명계가 선거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박 전 원내대표는 당내 이탈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 내부에서는 이 이탈표에 다수의 비명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오는 26일 치러진다.  
서선욱기자

## 여당 “민주, 배신자 색출...마녀사냥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전광석화처럼 ‘이재명 사당화’ 밀어붙여”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은라인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에 대한 살해협박글이 올라올 정도로 극단의 정치가 판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오히려 나서서 ‘배신자’를 색출하겠다”니 이런 마녀사냥이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야말로 내부 권력 투쟁에만 눈이 멀어 계파 갈등, 공천거래 시도 등과 같은 구태 정치를 자행하는데 민주당엔 정녕 민심의 엄중한 꾸짖음이 들리지 않겠는가”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이러한 행태는 정치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병상에서 의사소통조차 힘들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런 갖은 노력에도 결국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에는 전광석화처럼 원내지도부와 비

명계 최고위원을 사퇴시키며 ‘이재명 사당화’를 더욱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결국 끝까지 민주당을 놓아주지 않고 다음 주 있을 구속영장심사는 물론이거니와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당 전체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라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당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지리멸렬하고 있는 동안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법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사법부의 수장 자리가 공식으로 남는 비상사태에는 무슨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느냐”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살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이 대표는 민심과 자당 의원들의 엄중한 경고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 있을 사법절차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 여당 “윤 대통령, 유엔 총회서 북핵 위험성 전세계에 알려”

“한덕수 총리,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 ‘진지하게 검토’ 답변 끌어내”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북핵과 북러 군사 거리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파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도 높

게 평가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서로가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시 주석의 방한 문제도 진

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정책, 중국 편향 외교를 폐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가치 외교를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글로벌 이슈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위와 직결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지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메시지로 인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과 도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적대행위”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제 규범과 가치외교에 입각한 합리적 외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며 “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